

제 목 : 아히도벨의 계락을 폐하신 하나님

1. 아히도벨의 계략

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밤에 기습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(삼하 17:1-4).

2. 후세의 계략

1) 후세를 부른 압살롬

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그의 계략도 듣고자 했다(삼하 17:5-6).

2) 후세의 답변

후세는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격분해 있고, 모두가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기습을 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해 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. 후세는 압살롬이 모든 군사를 친히 진두지휘하여 전쟁에 나가 다윗 왕의 추종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라고 제안했다(삼하 17:7-14).

3) 후세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달함

- ① 후세는 이미 다윗에게 지시 받은 대로 이 일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했다(삼하 15:35, 17:15-16).
- ② 사독과 아비아달의 지시를 받은 한 여종이 에스로겔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소식을 전달했다(삼하 17:17-20).
- ③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가서 후세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날 밤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다 (삼하 17:21-22).
- ④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어 자살한다(삼하 17:23).

3. 압살롬과의 전쟁

1) 길르앗에서 진을 친 압살롬

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에 진을 치고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(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)를 세워 군을 지휘하게 했다(삼하 17:24-26).

2) 다윗을 섬긴 세 사람

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소비, 마길, 바르실래가 각종 물자와 풍부한 양식으로 다윗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섬겼다(삼하 17:27-29).